

형태와 바탕의 대비적 효과에서 나타나는 여백연구

The Study on Margins that has the contrasting effects between Figure and Ground

오치규

호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Oh, Chi-Gyu

Dept. of Graphic Design, HSU

• Key words: Figure, Ground, Margins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의 시각메시지는 형태(그림)와 바탕이라고 하는 地와 圖, Figure and Ground의 관계설정에서 출발한다.

형태와 바탕이 분리되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시각은 그 효용성을 달리한다. 이때 나타나는 여백은 단순히 형태와 바탕의 고정된 법칙적 관계로 이해되는 것 이상의 고도의 시각적 테크닉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여백을 이해하고 정의함에 있어 단순한 흰, 빈 공간으로 인식하였으며 여백은 형태와 바탕의 역할 설정에서도 바탕으로서의 조형성으로 해석되고 규정되었다. 특히, 형태와 바탕의 관계에서는 형태의 역할만을 부각시키거나 강조하였으므로 여백이 가진 조형적 가치와 본질적 효과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시각디자인 작업에서도 여백에 대한 모호성으로 표현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백의 시각적 효과와 조형성을 명확히 하고 미학적 가치를 설명함으로써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매력적 기법으로 새롭게 인식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범위

본 연구내용은 여백을 2차원으로 한정하여 형태와 그림의 관계에서 여백의 개념을 설정한다. 여백을 표현하는 여러 유사 용어들을 규정하며 여백의 조건을 통해 여백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며 여백의 조형적 역할과 예술적 가치를 동양예술의 기법과 해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시각디자인의 예시 작품을 통해 여백의 효과를 전개시킨다.

2. 여백의 개념

우리의 시각전달 용어에서 언어선택은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달라진다. “여백”이라는 용어도 해석에 따라 개념을 변화 시킬 만큼 유사 단어들에 있으며 유사용어의 정의로 명확한 개념설정을 하고자 한다. 크게 여백은 Margins, 공백의 Blank, 흰 여백인 White Space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Margins 은 시각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은 부분의 의미나 계획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단순히 남겨진 공간이나 미완결의 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Margins도 완벽한 번역으로 보기 어려우며 여백은 동양의 조형성과 미학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여백의 본질에는 “無” “未” “殘” “分” “中”의 의미가 있으며 시간적 진행성과 시각적 가변성외에 전체에서 부분만이 선택 되

어진 시각적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여백을 White Space로 해석하여 그 해석이 오히려 여백의 표현에서 색상과 조형성을 한정시켰다. 특히 형태와 바탕의 관계에서 여백은 언제나 바탕이나 배경으로 이해되어 여백의 본질적 개념성과 효과적 활용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3. 형태와 바탕

3-1. 형태와 바탕의 조건과 역할

우리의 지각에서 첫 단계는 형태와 바탕을 분리해내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시각물을 접할 때는 항상성이 작용함으로 형태와 바탕을 분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메시지 전달자는 형태와 바탕을 표현함에 있어 형태에만 집중하거나 형태와 바탕의 법칙적 관계로만 이해될 수 없다. 형태와 바탕은 의존적 등가성으로 양자의 조형이 동시에 창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태와 바탕은 아래와 같은 보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형태와 바탕의 성질

형태의 성질	구성성, 물성, 표면성, 돌출성, 육곽성, 불변성
바탕의 성질	등질성, 무정형, 면색성, 후퇴성

형태의 조건으로는 수직수평, 위보다 아래, 큰면적보다 작은 면적, 규칙적인 형, 밝은 색상, 볼록면, 반복성, 단순형태, 대칭형, 계합 등으로 이런 형은 선명성과 명료성, 시선 집중성에 의해 시각의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형태와 바탕은 고정된 성격이 아닌 반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시각 또한 이런 형식적 조건이 아닌 정보적 가치에 더 집중한다고 할 수 있다.

형태와 바탕의 심리적 관계에서는 뚜렷한 형태보다 시선 집중을 유도하는 심리작용이나 잠재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조형의 내재력을 더 강조하고 있다.

3-2. 여백의 기능과 특성

여백의 조건은

- 여백은 큰 면적이다.
- 여백은 단순성이 효과적이다.
- 무채색(흑·백)의 대비가 효과적이다.
- 프레임이 없을 때 효과적이다.
- 레이아웃에 의해 중첩성, 원근성, 투시성이 강조된다.

여백의 기능적 특성으로는

- ① 여백은 바탕이며 형태의 기능을 한다.
- ② 여백은 주목성을 가진다.
- ③ 여백은 심리적 작용에 용이하다.
- ④ 여백은 예술적 의미성을 갖는다.
- ⑤ 여백은 감각적 확장성을 가진다.

4. 형태와 바탕에 의한 여백의 조형성

4-1. 표현기법

여백의 효과적 표현 기법으로는 Layout과 재료적 특성 부가, 색상의 표현으로 집약될 수 있다. Layout은 여백이 가진 역할을 유도하는 것으로 형태와 바탕에서도 Layout만으로 조형적 역할을 반전시킬 수 있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①방향성에 의한 시선이동 ②변각을 이용한 화면배치 ③연속성을 예시한 부분표현 ④선에 의한 ⑤상상력을 유추 시키는 여백 표현 등이 있다. 이때 반영된 재료적 특성은 선 외부에 여백을 낳게 하고 이것은 여백의 문제를 동양문화와 직접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으로 선의 속도, 두께, 무게, 경연의 표현으로 선의 묘사가 진행된 뒤에 그 흔적과 여운이 여백의 느낌에 작용하는 것이다.

여백은 형태와 바탕의 색상선택으로 여백의 본질적 매력을 더할 수 있게 하는데 이때 흑·백의 선택은 주제의 명확성과 주목성을 효과적으로 성립시켜준다. 흑백에 의한 연번대비효과 이외의 내용적 대립성은 형태와 바탕모두의 역할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흑백의 콘트라스트는 형식으로서의 조형성과 의미로서의 상징성을 동시에 실현시켜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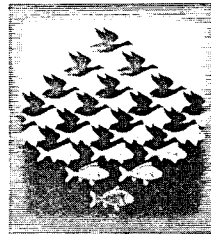
4-2. 예술적 의미

여백의 전통적 예술성은 동양과 서양에서 각각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동양의 여백은 여백 그 자체가 美의 요인인 동시에 가치였으며 이것은 형태와 바탕의 관계로 연결되어진다. 서양에서는 형태를 조형성의 절대적 부분으로 여겼으며 배경을 메움으로서 조형이 완성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여백의 표현도 지극히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묘사되어짐을 알 수 있다. 동양에서의 여백은 형태와 바탕이라는 이분법적으로 그 역할의 경계를 나누려하지 않고 형태와 바탕에서 가변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여지를 가졌다. 따라서 동양은 배경을 비우는 것으로 여백은 화면에 표현된 형상을 깊게 품어 그 형태를 완성으로 유도하는 의미성을 가졌다. 그러므로 여백은 묘사공간이 아닌 현실공간으로 에너지와 생명력이 내재된 연속공간이었다. 이것은 직관에 의한 상상력을 존중하는 여유로움과 모호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적 분석력을 강조하는 서양적 표현에서는 형태나 바탕이 각각의 역할을 나눔으로서 메시지의 명확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동양에서는 형태와 바탕이 그 경계선을 자유로이 넘나들고 오히려 바탕이 더 주요한 조형적 미학적 역할을 가진다고 여겼다. 따라서 동양은 여백이 가진 우연성과 경향성, 지

향성을 강조한 것으로 생명력 있는 여백의 매력을 즐겨왔다.

4-3. 형태와 바탕에서의 여백



[그림1] M.C.에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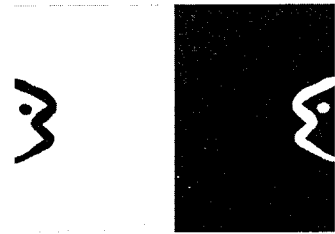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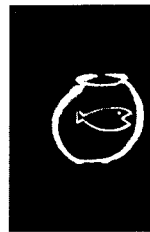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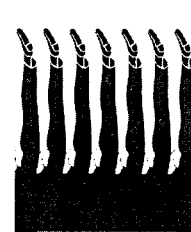
그림2] 오치규 작



[그림3] 오치규 작



[그림4] 오치규 작



[그림5] 후쿠다시게요 작

5. 결론

우리는 효과적인 시각표현을 위해 형태와 바탕을 시각표현의 주종관계로 규정하고 형태에 주목하는 조형표현에 익숙해졌다. 특히 여백을 배경의 기능적 역할 강조로 독특한 조형성과 매력을 제한시켰다. 동양에서의 여백은 모든 조형의 근원이며 생명력이 내재된 여지의 공간으로 바탕이며 동시에 형태로도 묘사되었다. 최근 다른 문화권에서 오히려 여백이 시각표현의 창조적 모티브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의 문화적 감성에는 여백의 조형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서가 잠재해 있으므로 여백의 조형의식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Gyorg Kepes, Languages of Vision, Dover Publication, Inc, 1994
- 吳治珪, 視覺デザインにおける 餘白の研究, 日本大學2000.3.
- 金原省吾 東洋美術, 河出書房, 1941